

Bongsu Park solo exhibition

탈영역우정국

Dreamers' Gathering

몽상가들의 모임

2021.05.21
- 06.08

Post Territory Ujeongguk

박봉수 개인전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협력: 탈영역우정국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POST TERRITORY UJEONGGUK

Curator: Anna Harsanyi

<몽상가들의 모임>은 다양한 이미지와 소재, 개인의 이야기가 반영된 탐구와 만남의 순간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몰입형 조각 설치, 영상을 비롯해 작가가 구축한 아카이브에서 가져온 작품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꿈의 다면적인 힘을 전달한다.

지난 수년에 걸쳐 박봉수 작가는 꿈을 사고파는 한국 전통문화 속 관계의 역학을 탐구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자기 성찰과 자기실현을 위한 전통적이면서도 일상적인 체계로서 꿈이 지닌 복잡 미묘한 일면들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두 개 층에 걸친 전시장에서 선보이는 작업들은 꿈에 대한 다채로운 탐구를 예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전시 공간은 소재에 대한 긴밀한 접점을 제시하며, 무형의 것에 형태를 부여하는 과정도 밀접하게 보여준다. 2층에 자리한 전시 공간에서는 꿈의 집단적 영향과 더불어 꿈에 대한 탐구를 통해 협업에 기반한 상호적인 경험을 자극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본다. 탈영역우정국이 한때 우체국으로 쓰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시가 이뤄지는 공간 또한 중요성을 지닌다. 우체국이던 이 공간은 개인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유대 관계를 구축했으며, 이것은 일대일 차원에서 이뤄지는 꿈의 교환에서 보이는 사회적 역동성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이다.

1층에 전시된 <Dream Incubator>①는 관객이 내부로 들어가 살펴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조물 형태의 작업으로, 꿈의 전경을 그려낸 설치 작업이다. 작가는 전시에 앞서 연락을 나누는 참가자들로부터 꿈을 꾸는 동안 기록한 뇌파를 수집했다. 이러한 기록을 참여자 각각의 수면 주기 가운데 렘수면에 해당하는 구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구조물에 매단 직물에 투사한다. 각각의 구조물은 참여자들을 묘사하는 추상적 데이터 초상으로, 꿈의 감정적이고 시각적인 경험에 대한 해석을 나타내준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월 29일에는 꿈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각자의 꿈을 공유하며, 꿈에 대한 한국적 전통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에 기반하여 박봉수 작가와 꿈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워크숍을 세계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의 관객들은 2층 전시장 및 작가의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꿈을 제출할 수 있다. 관객들이 제공한 여러 꿈 가운데 일부는 작가가 직접 제작한 두루마리에 담겨 2층 전시장에서 선보인다.⑤

꿈을 담은 두루마리들은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6월 5일 꿈 경매 행사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그레이월'의 변홍철 대표와 함께 진행할 이번 행사에서 작가는 워크숍과 온라인으로 꿈을 수집하고 꿈을 사고파는 전통을 경매의 형태로 구현할 것이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꿈의 거래 행위를 일시적인 거래의 장으로 전환하며, 꿈과 같은 비물질적 관념에 실질적으로 물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지닌 복잡성을 드러내 보인다. 경매는 또한 비공식적 관행을 공식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꿈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할 때 실현되는 주관적 가치 구조를 다룬다. 누군가 친구에게서 꿈을 구매할 때 이러한 행위의 상징적 중요성은 지불하는 가격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꿈의 거래에서 오가는 돈보다 실제 교환의 행위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꿈 경매는 그러한 거래를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사고파는 관행이 어떻게 물질적 영역 너머에서 존재하는지를 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꿈을 사고파는 행위가 지닌 힘은 그것의 사회적, 개인성, 친밀성에 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경제 구조에 대비되는 사적 인지를 바탕으로 교환되는 가치의 협상과 수용, 살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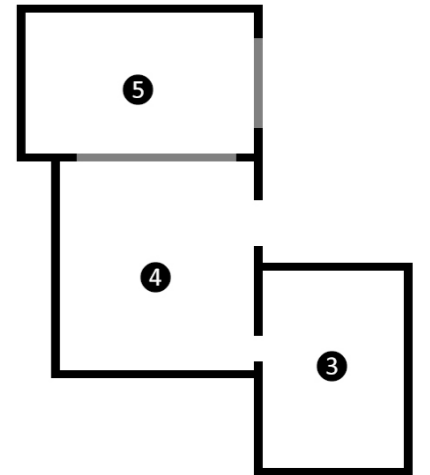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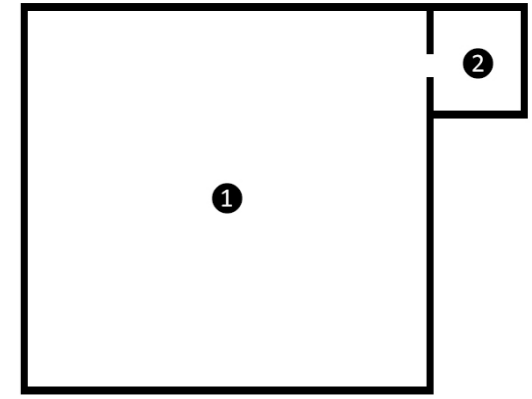
꿈을 사고파는 전통에서, 꿈의 교환이라는 부분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드림 옥션에서 꿈을 구매하는 사람은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은 꿈을 제공한 이를 기리는 무언의 계약과 같은 것이다. <Dream Contract>②는 과거 우체국의 안전실이었던 공간에 전시된다. 벽에 투사되는 긴 배열은 현재 디지털 아트 인증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즉 스마트 컨트랙트로 생성된 코드의 시퀀스이다. 박봉수 작가가 꿈을 판매의 요소로 전환하는 과정은 NFT가 가상에 존재하는 예술 작품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전에는 비물질로 여겨졌던 것에 물질성을 부여한다.

2층 전시장에서는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차진엽과 전자음악가 하임의 음악이 등장하는 <Dream View>③를 선보인다. 이 영상 작업은 무용과 전자음악, 시각 이미지 투사를 결합해 진행한 2019년 런던 코로넷 극장에서의 멀티미디어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진행된 몰입형 퍼포먼스는 수면과 꿈꾸는 상태를 전달함과 동시에 드림 옥션을 위한 사전 의식의 역할 또한 수행했다. 꿈을 상징적으로 거래하기 위한 무대의 배경이 된 것이다. 차진엽의 리드미컬한 몸짓을 만화경처럼 반영하는 이미지는 맥동하는 하임의 전자음악과 교차하며, 이것은 <Dream Incubator> 설치 작업 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이터 시각화와 영묘한 사운드스케이프의 패턴과 공명한다.

작가의 연구 과정은 한국의 역사적 내러티브와 문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관객은 연구 자료와 텍스트 가운데 일부를 전시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읽을 수 있다.④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꿈을 다루는 학자 및 연구자들이 작성한 글 또한 살펴볼 수 있으며, 5월 30일에 진행되는 드림 심포지엄에서는 한국문학, 정신분석학, 신화학 등의 연구자들이 꿈과 관련한 활동을 발제할 예정이다. 한국에 현존하는 공적 역사 내러티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삼국사기>의 한 이야기에서는 자매 관계인 김문희와 김보희가 꿈을 사고팔아 뒤바뀌는 운명을 다룬다. 이후의 역사적 문서인 고려시대의 <고려사>에도 거의 동일한 꿈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꿈의 사회적 가치란 세대를 거슬러 지속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또한 꿈이 긴 시간에 걸쳐 사회와 문화생활에 유입되면서 깊은 개인적 사유와 감정을 남기고, 심지어 삶의 과정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안겨주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목격한다.

<몽상가들의 모임>은 사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미적 경험을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다. 꿈의 교환은 내면의 생각을 나누는 것에서 비롯하는 상호 정서적 가치를 지닌다. 선의를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며, 상상에 부리를 둔 친밀한 제스처이다. 박봉수는 이러한 관계의 관습을 반영한 감각적인 시각 작품과 참여형 퍼포먼스, 잠재의식과의 밀접한 마주침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꿈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을 쥐어준다.

큐레이터: 아나할사니 Anna Harsanyi



<1층>

1. 드림 인큐베이터 Dream Incubator
설치, 2 채널 비디오
신재영 (REM 수면 뇌파 시각화)
하임 (사운드)

2. 드림 컨트랙트 Dream Contract
설치, 싱글 채널 비디오
열전사 프린터

<2층>

3. 드림뷰 Dream View
싱글 채널 비디오
차진엽 (무용)
하임 (사운드)

4. 리딩룸 Reading Room

5. 꿈 두루마리 Dream Scrolls

Dreamers' Gathering invites viewers into moments of exploration and gathering: of images, materials, and personal reflections. Presenting an immersive sculptural installation, videos, and selections from the artist's archive, this exhibition channels the multi-faceted power of dreams to facilitate social interaction.

For several years, Bongsu Park has developed an ongoing practice exploring the interpersonal dynamics in Korean traditions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For this exhibition, the artist invites audiences to delve into the intricacies of dreams as traditional yet casual systems for self-reflection and self-actualization in everyday life.

The artworks on view on the two floors of the gallery are organized to exemplify the manifold investigations of dreams present in the artist's practice. The ground floor spaces offer intimate connections to material, and to the process of giving form to the intangible. The spaces on the second floor consider the collective impact of dreams, and the ways in which dream explorations can stimulate collaborative, mutual experiences. The site of Post-Territory Ujeongguk is also significant, given its history as a former post office. It is a place which facilitate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formed processes for relational bonding, not unlike the social dynamics of person-to-person dream exchanges.

On the ground floor, *Dream Incubator* ❶ is an ethereal dreamscape installation for audiences to view and interact with by entering inside the structures. During the preparation for this exhibition, Park has worked with a select group of participants who have recorded their brainwaves while dreaming. These recordings were subsequently pared down to the REM period of each person's sleep cycle and translated into data visualizations which are projected onto the hanging fabric. The structure displays an abstract data portrait of the participants, interpretations of the emotional and visual experiences of dreaming.

Public programming also accompanies this exhibition, including a Dream Workshop on May 29. During the workshop, Park invites participants to share their dreams through storytelling exercises, and then discuss interpretations based on her research of Korean dream traditions and other fields. Park has been regularly conducting these workshops around the world, and also invites audiences to submit dreams on her website as well as in this gallery space, on the second floor. A selection of these contributed dreams is also represented on the second floor in a number of scrolls made by the artist, which feature texts written by dream contributors. ❺

These dream scrolls will also be sold in a culminating event on June 5, a public Dream Auction organized in collaboration with Byun Hongchul, director of Graywall. As Park collects dreams from workshops and online, she will enact the buying and selling tradition by performatively staging an auction. Such a performance transfers the buying and selling of dreams to a temporary marketplace, making visible the complexity of actually assigning physical value to such an immaterial notion as a dream. The auction will serve as a way of formalizing an informal practice, playing with subjective value structures that are enacted when assigning a monetary price to dreams. When a person buys a dream from their friend, its symbolic importance is actually not represented in the price one pays, and the transaction is less about currency than about the actual act of exchange. The Dream Auction then, is not a commodification of such a transaction, rather it calls attention to how the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exists beyond and outside of the material realm. Its power remains in the social, in the personal, the intimate – it signifies an interpersonal exchange of value that is negotiated, accepted, and cared for based on personal perception as opposed to formal economic struc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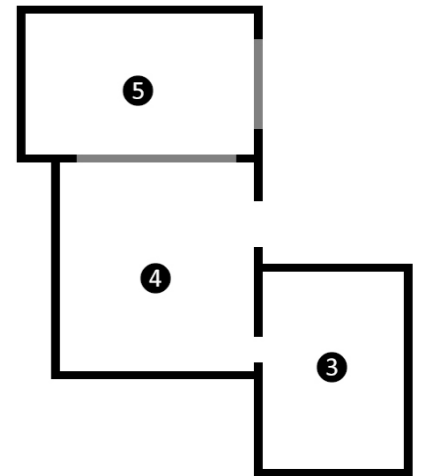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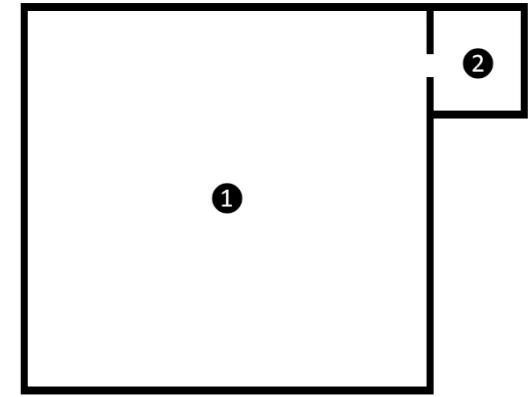
In the tradition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the transaction part of a dream exchange plays an important social function. In the Dream Auction, when purchasing a dream, the buyer agrees to enter into an agreement, a sort of unspoken contract which honors the person who contributed it. *Dream Contract* ❷ is displayed in what was once the ground floor safe room of the post office, where valuables were kept. Projected onto the wall is a lengthy sequence of code which has been generated as a smart contract of a non-fungible token (NFT), currently one of the most popular methods for authenticating digital art. In the same way that NFTs allow for virtual artworks to be assigned singular monetary value, Park's process of transferring dreams into elements for sale also distributes materiality to something previously considered immaterial.

On view on the second floor is the film *Dream View* ❸, which features dancer and movement artist Jinyeob Cha and music by haihm. This film was developed out of a series of multimedia performances at The Coronet Theatre in London in 2019 which interlaced dance, live electronic music and visual projections. The immersive performance channeled sleep and the dream state and served as a ritual to prepare for the Dream Auction - a setting of the stage for a symbolic trading of dreams. The kaleidoscopic mirrored images of Cha's rhythmic gestures, punctuated by haihm's electronic pulses, echo the morphing patterns of the data visualizations and the ethereal soundscapes that make up the *Dream Incubator* installation.

The artist's research process is partially informed by Korean historical narratives and literature, and a selection of research materials and texts are available on the second floor for visitors to browse and read. ❹ These include essays written by scholars working with dreams from various fields of study, who will discuss their practices at the Dream Symposium on May 30. In one piece of historical research, the SamgukSagi, the oldest surviving official Korean historical narrative, the trading of dreams between sisters Kim Munhui and Kim Bohui influences their divergent fates. In a later historical document, the Goryeosa from the Goryeo dynasty, a nearly identical dream is shared between two brothers, Boyuk and Ijegeon, whose lives change after they exchange it. A generation later, this dream re-appears in Boyuk's daughter's story, and her legacy is marked by this and other dreams shared among her family. From reading these historical accounts, it can be gleaned that the social value of dreams is a concept which endur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Such narratives also signify ways that dreams have long been infused into social and cultural life, providing opportunities for intimating deeply personal thoughts and feelings, and even extending into the course of our lives.

Dreamers' Gathering presents a space to gather aesthetic experiences which are at once personal and collective. Though dream transactions are informal and friendly, they hold mutual affective value rooted in the sharing of one's internal contemplations. It is a transfer of energy in good faith, an act of friendly generosity rooted in reverie. Echoing these relational habits, Park offers moments for experiencing dreams through sensory visuals, participatory events, and intimate encounters with the subconscious.

Curator : Anna Harsanyi



<1층>

1. *Dream Incubator*
installation, 2 channel video
Jaeyoung Shin (REM brainwave visualisations)
haihm (sound)
2. *Dream Contract*
installaion, single channel video
thermal printer

<2층>

3. *Dream View*
single channel video
Jinyeob Cha (movement)
haihm (sound)
4. Reading Room
5. Dream Scrolls

드림 워크숍

Dream Workshop

5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 3시 반

Saturday, May 29th, 2-3:30 pm KST



박봉수 작가와 꿈에 대한 대화를 편히 나누고 이에 대한 스토리텔링 활동을 진행합니다. 작가는 꿈에 대한 리서치와 작업을 참조하여, 워크숍 참여자들이 직접 꾸었던 꿈에서 찾을 수 있는 잠재적 의미와 이에 대한 상징적이고 직관적인 해석에 대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Led by artist Bongsu Park, participants will take part in casual conversations and storytelling activities about their dreams. Based on her research and artistic practice, the artist will give insights into the potential meanings and symbolic interpretations of the participants' dreams.

드림 심포지엄

Dream Symposium

5월 30일 일요일

오후 2시 - 3시 반

Sunday, May 30th

2-3:30 pm KST



꿈에 대한 작업과 연구를 진행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사회생활 전반의 다양한 맥락에서 꿈이 다뤄지는 방식을 살펴봅니다. 한국 고전문학 연구가 노영운은 한국사에 등장한 꿈을 사고 파는 매몽설화에 대해 소개하고, 정신분석학 전공자인 김서영 교수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할 것입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고혜경 교수는 개인의 꿈이 집단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진화하는지 세월호 사건때 수집한 꿈들로 연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박봉수 작가는 시각적 탐구를 통해 꿈을 다루는 방식을 작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는 각 20분간 진행되며, 발표 이후 박수지 큐레이터의 질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This symposium will bring together different practitioners who study and engage with dreams in their work, in order to highlight the ways in which dreams are considered in various contexts throughout both professional and social lif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scholar Noh Young-Yun will discuss the presence of dreams in Korean history, professor Suh-Young Kim will talk about how to use Freud's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in everyday life, and mythologist Koh Hye-Kyung will share her research on how individual dreams illuminate, analyze and heal society with dreams collected during the Sewol Ferry incident. Artist Bongsu Park will present her visual explorations of dreams in her artwork. Presentations will be 20 minutes each, followed by a Q&A session at the end led by curator Suzy Park.

드림 옥션

Dream Auction

6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 -7시

Saturday, June 5th, 5-7 pm KST

(event run in Korean, but bidding in English is available upon request)



꿈을 사고파는 전통은 풍요로운 사회적, 역사적 층위가 담긴 관습입니다. 박봉수 작가는 꿈을 사고파는 행위를 오랫동안 탐구하며 전시 관람객들과 워크숍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하고 나눈 다양한 꿈을 수집해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진행되는 워크숍 역시 이와 같은 활동의 일환입니다.

꿈 경매는 가까운 주변인들과 꿈을 사고파는 일상적인 관습을 경매라는 체계화된 형식을 통해 공식화함으로써 꿈의 거래 과정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행사의 주된 목적은 꿈 경매로 책정되는 가격이 아닌, 관객들로 하여금 꿈의 가치 구조와 교환 행위 자체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는데 있습니다.

그레이월 변홍철 대표가 경매를 진행하며, 경매 물품으로 출품된 꿈의 내용을 읽고 참가자들에게 경매 과정을 안내합니다. 경매에 오른 각각의 꿈은 작가가 직접 만든 두루마리에 기록되며, 경매 종료와 함께 최고가 입찰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입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현장 참여의 경우 인원이 제한됩니다. 최저 입찰가는 50,000원에서 시작하며, 수익금은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본 경매 참여에는 사전 경험의 유무나 재정적 준수 사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최고가 입찰자를 제외한 참여자들은 구매의 의무가 없습니다.

The Korean tradition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is a practice with rich social and historical layers. In her years exploring this practice, Bongsu Park has collected several dreams which have been written down and shared by participants in workshops and visitors to her exhibitions, including this one. In a culminating event, these dreams will be auctioned off as a way of formalizing an informal practice, and honoring the contributions of dreamers. This event will be playful and casual, offering a fun way to think about the process of transaction in buying and selling dreams. The auction is not a commodification of such a transaction, rather it invites the audience to reflect on the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and how it might exist beyond the material realm.

In the event, Byun Hongchul will lead the proceedings as auctioneer, reading each dream and then guiding participants in the auction process. Each dream will be transcribed on a custom scroll made by the artist, and it will be delivered to the highest bidder at the end of the event. Bidding will take place live online and for a limited number of in-person guests. Prices start at 50,000 KRW, and all profits from the auction will be donated to charity. No prior experience with auctions or financial qualifications are necessary to join this event, and event attendees are not required to purchase something.

꿈 기부하기



최대한 기억할 수 있는 만큼 꿈을 간단히 서술하십시오. 작성자의 동의 하에, 인쇄된 꿈은 작가가 향후 드림 옥션 이벤트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전달하는 최선의 의도로 정성껏 꿈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드림옥션에 기부하는 꿈은 당신이 개인적으로 꾸었던 꿈이어야 합니다. 팔고싶지 않은 꿈이나 이미 팔린 꿈은 제출하지 마십시오. 좋은 기운을 전달하는 최선의 의도로 정성껏 꿈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박봉수 Bongsu Park

런던에서 거주하면서 활동중인 박봉수 작가는 프랑스 보르도 보자르 미술대학에서 순수미술 학사(DNAP, Ecole des Beaux-Arts de Bordeaux)를, 그리고 런던 슬레이드 미술대학에서 미디어 아트 석사(MFA, Slade School of Fine Arts)를 취득하였다. 박봉수 작가의 작업은 관객참여, 퍼포먼스, 설치, 조각, 평면 작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참여자들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구성하여 공유하고 존재와 자각의 관계에 대한 동양적 사고방식을 서양의 동시대 사회에서 표현해오고 있다.

아나할사니 Anna Harsanyi 큐레이터

아나 할사니는 독립 큐레이터, 교육자, 아트 매니저이다. 그녀는 예술을 예술 이외의 맥락에서 표현하고 예술 공동체 밖에서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현장을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다. 그녀는 The New School의 기록 보관소와 소장품을 중심으로 기획한 프로젝트를 뉴욕의 Lower East Side에 있는 역사적인 Essex Street Market에서 발표했으며, Sheetal Prajapati와 함께 놀이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행사들을 협업했다. 2014년에는 루마니아 Timisoara와 Cluj에서 공산주의를 끝낸 혁명의 25주년에 대해 세계의 예술가 프로젝트를 선보인 공공 예술 프로젝트 Hot & Cold: Revolution in the Present Tension을 공동 큐레이션했다. 가장 최근에는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Guggenheim Social Practice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으며 현재는 The New School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신재영 Jaeyoung Shin 뇌파 시각화

신재영은 서울대학교 MARG(Music and Audio Research Group) 연구실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사운드 분석 및 생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Real-time interactive media를 통한 청각과 시각, 그 상호작용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하임 haihm 사운드

haihm은 전자음악가이다. 비주얼 아티스트, 무용가, 심포닉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협업해왔고, 영화음악을 만들고 있으며, 다수의 페스티벌에서 라이브 셋 공연을 이어왔다. 세번째 앨범 'NOWHERE' 발매를 앞두고 있다.

변홍철 Hongchul Byun 드림옥션 경매 진행

서울대학교 조소과와 동 대학원 졸업 후, 뉴욕대학교에서 예술경영 석사를 취득했다. 미디어시티서울,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등 폭넓은 미술기획 경력을 거친 후 2007부터 아트컨설팅 회사 그레이월을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국내외 전시와 아트페어등을 오가며 아트컨설팅을 진행해 왔으며 기업과 작가들을 연결하고 작가들과 다양한 창작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협업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다.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뉴욕의 판화공방갤러리 투팜스의 한국 세일즈디렉터를 겸직하고있다.

김서영 Suh-Young Kim 드림심포지엄 발제

영국 셰필드대학교 정신과 심리치료연구센터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영화로 읽는 정신분석 : 김서영의 치유하는 영화읽기], [프로이트의 환자들 : 정신분석을 낳은 150가지 사례 이야기], [내 무의식의 방 : 프로이트와 융으로 분석한 100가지 꿈 이야기],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 무의식에 비친 나를 찾아서], [프로이트의 편지 : 새로운 삶을 위한 동일시 이야기], [드림 저널: 나를 변화시키는 100일의 꿈 일기], [아주 사적인 신화읽기: 신화로 보는 내 마음의 비밀]이 있고, 옮긴 책으로 [라캉 읽기], [에크리 읽기], [시차적 관점]이 있으며, 함께 지은 책에 [어린왕자,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 심리 수업]이 있다.

고혜경 Hye-Kyung Koh 드림심포지엄 발제

신화학 박사이자 그룹 투사 꿈작업가로서 현재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꿈과 융 심리학 그리고 개인의 신화와 집단의 꿈을 가르친다. 오클랜드 창조영성대학원에서 제레미 테일러 박사를 만나 꿈 세계를 접한 후 좀 더 깊이 꿈 말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 퍼시픽카대학원에서 신화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태초에 할망이 있었다》《나의 꿈사용법》《꿈에게 길을 묻다》가 있고, 옮긴 책으로 《꿈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나라》《꿈이 이끄는 치유의 길》《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여신의 언어》 등이 있다.

노영윤 Young-Yun Noh 드림심포지엄 발제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현재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의 강의초빙교수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2010년 「설화를 활용한 시 창작 과정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그리고 2012년 「설화 속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심리적 특징과 그 의미 - 설화 <진희매몽>과 <문희매몽>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16년 「사진일기와 그림동화를 활용한 자기발견 진로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 『고전문학과 교육』3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등이 있다.

박수지 Suzy Park 드림심포지엄 진행

서울을 기반으로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전시기획사 에이전시 뤼뤼(AGENCY RARY)를 운영한다. 학부는 경제학을, 석사는 미학을 전공했다. 부산의 독립문화공간 아지트 큐레이터를 시작으로, 미술문화비평지 《비아트》 편집팀장, 《제주비엔날레2017》 큐레토리얼팀 코디네이터, 통의동보안여관 큐레이터로 일했다. 《7인의 지식인》(2020), 《춤 백 카메라》(2019), 《어리석다 할 것인가 사내답다 할 것인가》(2018), 《유쾌한 몽톡》(2018), 《우정의 외면》(2015) 등을 기획 했다.

이동엽 Dongyub Lee 드림 컨트랙트 기술자문

littince는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IT와 디자인이 접목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컨설팅과 자문도 담당하고 있다.